

도림선교 이야기

Dorim Mission Magazine

2025년 | 통권 20호 WINTER



도림교회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건축한 네팔 아시어누그러하 교회



도림서교 민 이야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마 25:40)

D o r i m P r e s b y t e r i a n C h u r c h

넘어진 이웃을 일으키는 사랑

길 위에 쓰러진 자를 본 사람은 많았으나 손을 내민 이는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마리아인이었고, 그의 마음은 사랑이었습니다.

넘어진 이웃의 상처를 감싸고 머물 곳 없는 자에게 쉼을 내어준 그 사랑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의 이웃인가?

이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두운 눈물을 닦아주는 손길, 굶주린 자의 배를 채우는 마음, 그곳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랑으로 넘어진 이웃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 사랑이 흘러 모든 이에게 주님의 평화를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Contents

02	담임목사 칼럼 오병이어의 은혜 정명철 담임목사
<hr/>	
선교이야기 1 - 아프리카	
04	가나 조영광 · 김선희선교사
08	케냐 김홍일 · 이해정선교사
<hr/>	
선교이야기 2 - 동유럽	
15	체코 이종실 · 김진아선교사
18	폴란드 김상철 · 서정희선교사
20	헝가리 신성학 · 최성욱선교사
<hr/>	
선교이야기 3 - 남아메리카	
23	아르헨티나 이재삼선교사
26	멕시코 이성재 · 유한나선교사
28	볼리비아 이생우 · 장희영선교사
30	온두라스 여인걸 · 김영리선교사
<hr/>	
선교이야기 4 - 동남아시아	
32	필리핀 최동아 · 홍경신선교사, 김성록 · 구선우선교사
36	필리핀 한신 · 황유미선교사
38	태국 김영석 · 임미숙선교사, 김광석 · 장정인선교사
42	태국 사하밋학교 최호득 · 신미옥선교사
46	인도 김상수 · 박은숙선교사
53	캄보디아 송준섭 · 박진경선교사
56	캄보디아 이응우 · 윤은희선교사
59	베트남 김덕규 · 장광숙선교사
62	베트남 최다니엘 · 배에스더선교사
64	네팔 최희철 · 김은영선교사
67	인도네시아 이필환 · 김영숙선교사
70	동티모르 이대훈 · 김차순선교사
<hr/>	
선교이야기 5 - 동북아시아	
74	중국인교회 최황규 · 김은혜선교사
76	몽골 김영주 · 오양가선교사
78	몽골 허성환 · 박미자선교사
<hr/>	
80	2025 도림교회 선교현황

도림선교이야기 통권 제20호

발행일 2025년 12월 27일 **발행인** 정명철 **편집인** 도림교회 해외선교부
발행처 0737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영로 37
전화 02-2181-6000 팩스 02-846-5221 홈페이지 www.dorim.net
디자인 월커뮤니케이션즈 02-2277-7690

“도림선교이야기”에 게재된 글과 사진과 그림은 무단 복제할 수 없습니다.

WELCOME MESSAGE

담임목사
칼럼

오병이어의 은혜

(2025 선교주일 설교요약)



D O R I M P R E S B Y T E R I A N C H U R C H



오병이어의 사건은 네 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모든 제자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긴 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가장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무리가 병자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기적 자체로 사람을 모으시려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기적은 사람을 놀라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 구원으로 이어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된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이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한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그 소년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먹을 것이 사라지는 것을 염려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행동을 이끌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단순하고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통해 세워집니다. 우

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감사할 이유가 없었지만,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감사하셨습니다. 감사는 풍족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런 감사가 바로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변화된 것은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도 선교지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더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님들의 감사와 헌신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교회를 사랑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친히 지켜주십니다.

셋째,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습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시작했지만,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큰일을 이루십니다. 6.25전쟁 후, 외국 교회들이 한국을 위해 드린 사랑의 헌금은 결코 많지 않았지만, 그 사랑의 씨앗이 한국교회를 일으켰고, 오늘의 선교하는 나라로 세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할 차례입니다. 주님을 사랑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감사와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다시 한 번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와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그 손길에 하늘의 복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담임목사
정명철



①, ② 2025년 독일이사회

할렐루야! 가나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한국은 겨울이지만, 이곳 가나는 다시 뜨거운 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적도의 강렬한 태양이 대지를 달구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도 꽃을 피우는 들꽃처럼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찬양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가나 선교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시는 존경하는 정명철 담임목사님과 모든 도림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코숨보에서 선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5년 독일이사회

지난 8월 25일부터 일주일간,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독일 슈파이어에서 삼국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말씀 묵상과 교제를 통해 풍성한 사감을 나누었으며, 성찬식을 통해 주님 안에서 하나 됨을 고백하고 컴퓨터 학교의 미래를 위한 은혜로운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종교세로 운영되는 독일교회는 교인 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시행해야 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독일의 형제 교회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④, ⑤ 컴퓨터 학교사역
⑥ 아눔 뉴타운 지봉교회 건축지원

컴퓨터 학교사역

10월 6일부터 제4학기를 개강하여 총 136명의 학생들과 함께 컴퓨터 및 음악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학기에는 지역 5개 초등학교 학생 약 80명이 새로 등록하여 ICT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인근 초등학교 중 다수는 컴퓨터 교실이 없어, 저희 기관이 교육부 커리큘럼에 따라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음악 교실 역시 수강 대기자가 약 6명에 달하지만 교사 부족으로 반을 추가 개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은 학교의 기본 시스템을 세우는 기간이었습니다. 앞으로의 3년은 모든 직원의 리더십 개발과 기독교 인재 양성을 목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학교가 청지기 정신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눔 뉴타운 지봉교회 건축지원

도림교회의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서순덕장로의 헌신을 통해 뉴타운 지봉교회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봉교회'란 임시로 지봉만 세워 예배를 드리는 예배처로, 기도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뉴타운 지봉교회는 매주 약 30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진입이 어려워 땅고 나무 아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지봉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농업에 종사하며 생계가 어려운 가운데, 도림교회의 후원으로 교회 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공사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의 우물 프로젝트

생명의 우물 프로젝트

“물은 곧 생명입니다.” 우리 영등포노회와 여러 교회의 지원으로 크라치, 펠레마, 호호에, 담바이, 완카야우 등 다섯 지역에 우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약 5,000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생명과 같은 식수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의 물 사정은 수도 아크라조차 일주일 중 2~3일만 수도물이 나올 정도로 매우 열악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 귀한 프로젝트를 위해 계속 기도해주시기 바라며, 멀고도 먼 이곳 가나 땅을 위해 물질과 마음으로 함께해주신 정명철 담임목사님과 도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영등포노회와 한독가위원회에 속한 모든 교회가 부흥하도록
- ② 컴퓨터학교의 영속성을 위한 리더십 훈련이 열매를 맺도록
- ③ 선교사 부부의 강건함을 위해서



≡ 생명의 우물 프로젝트



지역지 소개

저희가 살고 있는 카보모는 수도 나이로비에서 약 450km 떨어진 북서부의 해발 2,400미터 산지에 자리한 아주 작은 아프리카의 산골 마을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7월 둘째 주, 방문 전도를 통해 시작된 카보모교회는 올해로 5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매주일 설교와 성경공부반을 통해 성도들을 꾸준히 양육하고 있으며, 자동차로 약 세 시간 떨어진 키플레게릿교회도 3주에 한 번씩 방문하여 말씀을 전하고 돌보고 있습니다.

이 두 교회를 중심으로 제자훈련, 신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역,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제, 지역 교회 지원, 그리고 의료선교팀과의 협력을 통한 의료사역 등 다양한 사역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고 있습니다.

- ① 카보모주일학교 예배모습
- ② 카보모교회 첫 출석 아기기도
- ③ 카보모주일학교 헌금
- ④ 카보모주일학교 어린이들



- ⑤ 카보모교회 세례식
- ⑥ 카보모주일학교 어린이들



7



8



9

7, 8, 10 의료선교사역
9 장학사업

카보모 교회의 믿음의 성장

코로나 시기에 새신자들로 시작된 카보모교회는 해마다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까지 매주일 예배 시작 전 한 시간 동안 성경공부 반을 운영하며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 교재로 훈련을 마쳤고, 올해부터는 ‘로마서’를 중심으로 성경을 깊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이 점차 말씀을 깨닫고 믿음이 성장하여, 이제는 받기만 하던 사람들이 가난한 형편 속에서도 기꺼이 나누는 성도들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례받는 이들도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에는 9명이 세례를 받았으며, 올해에는 13명이 세례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케르묵 지역으로 사역의 확장

저희가 거주하는 산 아래 오지인 케르묵 지역은 영적·물질적으로 도움이 절실한 곳입니다. 3년 전



10



11

11 카보모기도의집 숙소
12 원투원 제자훈련



12

부터 이 지역에서 농업선교를 해오던 영국 선교사님의 요청으로 여러 차례 방문하여 의료선교팀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앞으로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전도와 구제 사역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사역의 지평이 이러한 오지로까지 확장되고 있음에 감사와 기쁨을 느낍니다.

카보모 기도 의 집 숙소 완공

최근 카보모에 숙소가 완공되어 지역 교회들의 다양한 모임과 기도모임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 간의 연합이 강화되고, 지역 영적 부흥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기타 사역 소식

목회자가 부족한 이 지역의 현실을 돕기 위해 올해에도 7명의 신학생을 장학사업을 통해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가난한 고등학생과 과부들을 돕고, 인근 교회들의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모든 사역이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가능했음을 감사드립니다.

🌿 기도 제목

- ① 카보모와 키플레게릿 교회의 예배를 통해 많은 이들이 구원과 영생을 얻도록
- ② 카보모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 ③ 케르묵 지역 선교가 확장되도록



⑥ 러브소나타 in Carthage ⑨ 현지 그리스도인
 ⑦ 현지 그리스도인 가정 ⑩ 전도초청행사
 ⑧ 땅끝교회 모임

무슬림 이웃에게 전하는 삶의 복음

저희 가정은 중동 무슬림들을 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땅에 왔습니다. 처음 올 때부터 지금까지 무슬림 이웃들에게 빛진 마음으로 살며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고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별히 감사한 일은, 어학원에서 만난 교사들을 초청해 한국 문화의 밤 행사를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순간입니다. 독실한 무슬림들이었지만 한국 문화를 통해 전해지는 사랑 앞에서 성령이 임하셨고, 서로 께안으며 눈물을 흘리는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마이마와는 지속적인 교제 관계가 이어지고 있으며, 그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 돌같이 굳어 보였던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 기도 제 목

- ① 튀니지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 ② 현지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의 증인으로 굳게 서도록
- ③ 선교사 가정의 강건함을 위해



⑩

하나님의 파송을 기다린 34년의 여정

1988년 총회 전도부 국제선교위원회 간사로 사역을 시작하여 1992년 세계선교부 간사로 퇴사한 후, 저는 “후원회의 파송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파송을 받을 것인가?”라는 실존적 질문 앞에 섰습니다. 인간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빈손으로 체코 슬로바키아로 떠났습니다. 처음 5년은 말 그대로 생존의 외줄타기였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버티자, 내일까지만 기다리자”는 절박한 믿음의 시간 속에서도, 마지막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도움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나타난 파송

그렇게 5년이 지나던 1997년 3월, 우리 교단과 체코 형제복음교단이 선교협정을 체결하던 바로 그날, 이미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저를 전담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5년의 실존적 기다림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 후 30년의 체코 선교 여정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 34년간의 사역은 제가 계획하거나 주도한 일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필요한 자원은 언제나 때마다 여러 동역교회를 통해 절묘하게 공급되었습니다.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가난하나 부요한” 선교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한결같이 사랑과 기도로 함께해 주신 도림교회 덕분이었습니다.



⌘ 여름수련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선교대회



“선교회의 해외선교”에서 “교회의 세계선교”로

오늘날 선교는 과거의 ‘선교회의 해외선교’ 시대를 지나 ‘교회의 세계선교’ 시대로 전환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복음을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복음을 함께 탐구하고 해석하는 동반자의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 교회는 같은 성경을 믿지만, 그 표현과 삶의 모습은 모두 다릅니다. 선교사는 그 다름을 경청하며 각 문화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발견해야 합니다.

복음은 초월적이면서도 상호침투적인 운동성을 지니며, 선교사는 그 복음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청과 순종은 타자와 함께 살아내는 실존적 결단으로 이어지며, 이 과정 속에서 선교사는 매일 새롭게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마무리되는 공적 사역, 그러나 끝나지 않는 부르심
이제 제게 주어진 공적 파송 선교사의 시간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처음 파송 당시 정년은 65세였지만 지금은 70세로 연장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긴 격리의 시간을 지나며, 제 사역의 인저리 타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남은 과제가 있지만, 이번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선교대회에서의 특강과 보고를 통해 공적 사역의 책임을 다한 자유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족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큰 탈 없이 사명을 완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끊임없이 기도와 사랑으로 동행해 주신 도림 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적 사역은 마무리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전히 제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이제는 책임과 빛을 품은 채, 한결같은 평안과 자유함으로 다음 여정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34년의 세월 동안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선교의 주체이신 성령께서 오늘도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시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가실 것을 믿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하도록
- ② 체코 교회와 선교 동역의 열매를 위해
- ③ 은퇴 이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사랑하는 도림교회 성도님들께 평안을 전합니다. 도림교회의 섬김과 격려는 폴란드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든든히 받쳐주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사역지 소개

저는 대한예수교장로회(PCCK) 총회 파송 폴란드 선교사로, 중앙유럽 폴란드 남부 도시 크라쿠프에서 올해로 31년째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사역은 언제나 쉽지 않았으나, 주께서 앞서 일하시고 보내주신 교회들의 기도로 오늘까지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사역의 세 축

① 디아스포라 사역 - 중앙유럽(한·폴) 목회자 아카데미
중앙유럽의 목회자들을 세우는 사역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한·폴 목회자 아카데미를 통해 영적 리더십을 나누고, 지역 교회를 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 ① 제16차 한폴목회자 아카데미
- ②, ③ 크라쿠프 이삭교회
- ④ 리브네교회 보조전력지원
- ⑤ 우크라이나 리브네 물품지원



- ⑥ 우크라이나 리브네 물품지원
- ⑦ 야보즈노 벨엘교회 안 스카비니악 목사 방문
- ⑧ 쳉스토호바 교회 자매결연
- ⑨, ⑩ 우크라이나 어린이 성탄지원

② 에큐메니칼 사역 - 크라쿠프 한인 이삭교회

크라쿠프 한인 이삭교회 담임으로 섬기며, 한인 성도들과 현지 유학생·직장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단과 교회의 연합 안에서 에큐메니칼 사역을 이어가며, 교회의 일치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③ 거리·난민 사역 - 우크라이나 형제들을 향한 섬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난민들을 향한 사랑과 지원은 사역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지 우크라이나 교회들과 협력하여 물품을 지원하고, 전쟁으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은 저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림교회의 사랑 어린 격려와 기도, 그리고 물질적 후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멀리 중앙유럽 폴란드 땅에서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도림교회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기도 제목

- ① 중앙유럽 복음사역의 확장을 위해
- ② 우크라이나 난민과 현지 교회 지원을 위해
- ③ 선교사 가정의 강건함을 위해





Hungary 헝가리 | 신성학 · 최성옥 선교사



살롬! 헝가리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늘 주님의 마음으로 동행해 주시는 도림교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헝가리 교회의 현황

헝가리는 종교개혁의 전통이 깊어 서유럽에 비해 교회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예배 출석률이 크게 감소했고, 동성애 · 젠더 이슈 등으로 인해 선교 환경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령의 일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계속 감당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현지 사역

저희는 케젤렘교회, 오병이어교회, 집시마을 사역(꾸르메시 · 니클러 · 허포시 · 후손외트)과 노숙인 사역, 서부역 찬양 전도집회 등 다양한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역 찬양 전도집회를 통해 현지 교회가 확장되는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①, ② 집시마을 사역
- ③ 집시마을 예배
- ④, ⑤, ⑥, ⑦, ⑧, ⑨ 서부역 찬양전도



☞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단기선교팀과 함께

오스트리아·체코 단기선교

지난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단기선교팀과 함께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를 순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지역은 영적으로 매우 메말라 있으며, 특히 오스트리아와 체코는 무신론 비율이 90%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사역을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시는 도림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굳게 붙드시고 이 시대의 생명의 등불로 더욱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헝가리와 인접 지역의 영적 회복을 위해
- ② 사역지(교회·집시마을·노숙인 사역)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 ③ 선교사 가정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Argentina 아르헨티나 | 이재삼 선교사

할렐루야!!! 오직 주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정명철 담임목사님과 도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곳 아르헨티나 선교사역을 위해 변함없이 늘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더디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지 소개

이곳 아르헨티나는 지난 9월 7일 치러진 지방 의회 선거에서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이끄는 자유전진당(LLA)이 참패하면서 한동안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10월 26일에 치러진 상·하원 총선에서는 자유전진당이 승리함으로써, 앞으로 남은 대통령 임기 2년 동안 더 강력한 구조조정과 사회적 지원금 축소, 그리고 긴축 재정 정책 등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사회·경제적 변화의 시기는 국민들에게 매우 험겨운 시간이 되고 있으며, 서민들의 삶 또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때일수록 복음 선교가 더욱 강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아르헨티나의 영혼 구원을 위해 도림교회 성도님들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PCK) 총회 선교사대회

총회 세계선교사회 대표회장으로서 임기 중 가장 중요한 행사인 선교사대회 및 총회를 7월 8일(화)부터 11일(금)까지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선교사와 MK 등 약 250명이 함께 모인 이번 대회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에 복음을 전한 지 14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와 선교"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선교사들의 영적 재충전과 교제의 시간이 되었으며, 도림교회의 후원과 기도 덕분에 은혜롭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대한 예수교 장로회(PCK) 총회 선교사대회





현지인 목회자 훈련원 SIMPA 세미나

올해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3박 4일 일정으로 현지인 목회자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모세오경(특히 레위기)과 기독교 사회복지(교회와 지역사회)를 주제로 강의하며, 목회자 교육과 상담,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 그리고 사명을 새롭게 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SIMPA 목회자 훈련을 통해 차세대 젊은 목회자들이 세워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훈련원과 미자립교회들에 성경을 계속 보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란노선교신학교 (Seminario Teologico Misionero Tiranno)

부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두란노신학교는 현장수업과 온라인수업을 병행하며 신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올라와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교 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장학금과 생필품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올해 학위 수여식은 11월 29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12월 초에는 두란노신학교 신학생 선교단이 미시온주 하르딘 아메리카 지역으로 파송되어 선교와 봉사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①, ② 목회자 훈련원
- ③, ④, ⑤ 빈민촌 교회
- ⑥ 두란노선교신학교
- ⑦ 소아암 어린이 돕기

교회개척 사역

선교지 개척교회인 갈라르돈(Galardon, '면류관')교회와 베나비데스(Benavides)장로교회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갈라르돈교회는 빈민촌 지역에 위치해 있어 주중에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급식 사역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찾아오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 준비된 음식의 양을 나누어 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큼니다. 현재 두 교회에서는 영적 양식을 전하기 위해 어린이 성경을 보급하고자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아암 어린이 돕기

대림절부터 부활절까지 성도들이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을 묵상하며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와 헌금에 동참했습니다. 그 결과 5명의 어린이에게 수술비와 약값을 지원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가정의 신앙이 회복되고 교회로 돌아오는 열매를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도림교회의 귀한 선교 동역 덕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기도 제 목

- ① 디아스포라 교회와 두란노신학교를 통해 풍성한 선교의 열매를 맺도록
- ② SIMPA 세미나를 통해 현지 목회자들의 목회를 잘 돕도록
- ③ 선교사 부부의 강건함을 위해





≡ 캠퍼스 사역

안녕하세요. 멕시코 메리다를 위해 늘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는 도림교회 정명철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멕시코 메리다는 유카탄 반도에 위치한 도시로, 이곳은 한인 이민의 역사가 시작된 곳입니다. 1900년대 초, 우리 선조들이 일본의 거짓 약속에 속아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만 믿고 이주했지만, 실제로는 혹독한 노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인 이민 역사 박물관에서는 당시 선인장 농장에서 힘겹게 일하며 살아갔던 선조들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비록 작은 규모지만, 그들이 모은 적은 돈으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김영하 작가의 소설 검은 꽃에서도 그 시절의 한인 이민자들의 삶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일 년 내내 무더운 기후로, 4~5월에는 기온이 40도를 넘고 체감 온도는 50도에 달하기도 합니다. 그런 날씨 속에서도 문화와 언어조차 모른 채 하루 종일 피약벌 아래에서 일하던 선조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지금도 이 지역에는 한국식 성씨를 가진 멕시코인들을 종종 만날 수 있는데, 이들이 바로 한인 후손들입니다.

저희 가정은 2년 전 코스타리카 사역을 현지인에게 이양하고, 다시 메리다로 와서 새로운 개척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캠퍼스로 나가 복음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제자를 세우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역 1년 만인 작년 12월에는 14명의 순장을 세우는 은혜를 주셨고, 이후 2명의 간사 지원자가 생겼으며, 지난달에는 9명의 새로운 순장들을 더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일'이 바로 저희가 감당하고 있는 핵심 사역입니다.

한편, 유한나 선교사는 '시그니피컨트 우먼(Significant Woman)' 과정을 통해 여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특성과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도록 돕는 여성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교육에 그치지 않고, 다른 이들이 이 과정을 인도할 수 있도록 리더 양성과정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메리다에서 첫 번째 과정을 마쳤고, 현재는 온라인으로 에콰도르 · 페루 · 멕시코 여성들과 함께 10주간의 일반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는 멕시코 전역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인도자 과정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캠퍼스 순장들이 제자삼는 삶을 살도록
- ② '시그니피컨트 우먼' 사역을 통해 믿음의 여성들이 세워지도록
- ③ 선교사 가정의 강건함을 위해





희망장로교학교 중·고등학교 건축

존경하는 도림교회 정명철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남아메리카 볼리비아의 코차밤바입니다. 볼리비아의 선교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감사와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신학교 사역

농촌 목회자들을 위한 신학교에서는 화상수업을 통해 강의와 과제 제출,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료 후에는 원주민 총회에서 목사고시를 치른 뒤 목회 사역에 임하게 됩니다. 선교사는 원주민 노회가 이러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1 새소망교회
2 영생교회
3, 4 희망장로교학교 행사

학원 사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5개 반과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5학년 까지 총 310명의 학생과 32명의 교사들이 매일 말씀 읽기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직원들의 헌신적인 교육으로 초등부 학생 호세가 코차밤바 주에서 열린 장학퀴즈에서 우승하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가 주관한 전교생 신앙수련회가 교사 13명의 파송으로 은혜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볼리비아 원주민들의 교회 (영생교회와 새소망교회)

8년간 섬겼던 원주민 예수사랑교회를 치과의사 출신인 헤르손 목회자에게 이양한 후, 교회가 1년 동안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올해 2월에는 영생교회를 재개척하여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며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있고, 새소망교회는 오전 9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주민 교회 자립사역

희망장로교학교에서는 지역 목회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비의 절반을 지원함으로써 이중직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볼리비아는 도시화로 인해 도시 빈민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교회가 자립이 어려워 목회자들이 생계를 위해 부업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시 빈민 선교의 필요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예수사랑교회 창립30주년행사



희망중고등학교 건축사역

희망중고등학교 교실이 현재 90% 완공되었습니다. 사카바 시장의 협조로 학생들이 이미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남은 공사를 마무리하여 2026학년도 학생들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 1 볼리비아 교회들이 부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2 도시 빈민 선교가 확장되고 열매 맺도록
3 장로교 희망학교 중·고등학교 건축이 잘 완공되도록

샬롬!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림교회 정명철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중미 온두라스 북부 코르테스 주 마라농 지역에 위치한 호산나 크리스천 스쿨에서 사역하고 있는 여인걸선교사입니다.

사역지 소개

마라농은 온두라스 제2의 도시인 산페드로술라(San Pedro Sula) 인근의 가난한 지역으로, 주민 대부분은 생계를 위해 지방에서 이주해와 인근 공단에서 일하며 정착한 가정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면서, 가족 중 한 사람이 미국이나 스페인 등으로 노동이민을 떠나 현지 가족을 부양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저희 학교 학생들의 가정 중에는 한부모 가정이나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호산나 크리스천 스쿨

호산나학교는 온두라스 문교부에 정식으로 인가받은 학교로, 작년까지 9학년까지 운영되었으며 올해는 10학년을 신설하고 내년에는 11학년 개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95명의 학생과 12명의 교사가 함께하며, 2월 개학식으로 시작된 한 해의 학사 일정이 이제 11월 졸업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온두라스의 열악한 경제 현실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조기에 생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는 인문계반과 컴퓨터반 두 과정을 운영하며, 내년부터는 컴퓨터반의 교육과정을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직 말씀으로 온두라스를 변화시키자”는 비전을 품은 호산나학교는 올해도 말씀 중심의 학교로 세워져 왔습니다.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고, 매일 성경공부와 요절 암송, 찬양 발표를 통해 학생들이 말씀 속에 자라가도록 힘써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전교생이 하루 한 장씩 함께 읽으며 은혜로운 아침예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라농 지역은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영양 결핍과 질병이 잦은 곳입니다. 학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두 차례 구충제 복용과 비타민 섭취를 실시하며 학생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교회들과 협력하여 장학생 선발, 성경학교, 의료선교 등을 진행하며 지역 복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인디오 데이, 패밀리 데이, 바자회, 어린이 축구 대회 등은 이제 지역의 축제로 자리 잡아 많은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고 있습니다.

호산나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복음의 공동체로서 지역 속에 따뜻한 빛과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호산나 학생들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 ② 학교의 재정이 안정되도록
- ③ 교사들이 잘 채용되도록

- ① 성경학교
- ② 노방전도
- ③ 바자회
- ④ 기도하는 아이들
- ⑤ 패밀리 데이



찬 바람이 스며드는 겨울입니다. 차가운 계절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도림교회 위에 더욱 깊고 따뜻하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향해 가는 이 때에,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 그리고 하늘의 은혜가 풍성히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곳 필리핀 숲속 마을 선교지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과 도림교회의 변함없는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이 이 땅에서 복음의 열매로 귀하게 맺혀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전해드립니다.

빅포레스트 아카데미 사역

1) Buwan ng Wika 행사

8월 27일, 우리 학교에서는 'Buwan ng Wika(언어의 달)'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필리핀의 모국어 기리며, 학생들이 자신의 언어와 문화 안에서 도전과 비전을 발견하도록 돕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아이들은 전통 의상 발표와 다양한 무대 공연을 통해 필리핀의 역사와 문화를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과 꿈을 다시금 마음에 새겼습니다. 무대에 서서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울동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고 계심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2) 대외 수상 소식

9월은 학생들의 뛰어난 성취가 가득한 감사의 달이었습니다. 9월 6일에는 6학년 슈카이라 미쉬(Schuyler Mish) 학생이 '2025 바탕 헨요 국제 수퍼 모델(Batang Henyo International Super Model)' 대회에서 3등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어 9월 24일 '카비테 주 2025 저널리즘(Journalism) 대회'에서는 무려 12명의 학생이 입상하는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꿈을 향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사와 감격을 느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3) 고등학교 건물 헌당식

9월 3일에는 고등학교 건물 헌당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은 단순한 건물 완공을 넘어, 학교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 계획이 드러나는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빅포레스트아카데미 교사들과 학생들은 이 날을 위해 수년 동안 기도하며 헌신해 왔습니다.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감동의 자리였습니다.



1



2



3



4

- 1, 2, 3
- 4 빅포레스트 아카데미
- 4 Buwan ng Wika 행사
- 4 빅포레스트 아카데미
- 4 12명의 학생 입상소식
- 5, 6 패밀리 데이



5



6



☞ 7,8,9 행복한 커피학교 10 장학금 전달식

☞ 11,12 발루바드 교회

아태기술학교 (ASPAC Technical School) 사역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2025 행복한 커피학교'가 열렸습니다. 지역 주민 18명이 참여하여 커피의 기본 이론부터 실습까지 함께 배우며 기쁨과 교제가 넘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커피학교는 단순한 바리스타 교육을 넘어, "세상에서 하나뿐인 커피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중한 당신에게"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커피를 배우는 과정 자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커피 향기에 스며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이웃과 공동체에 따뜻하게 퍼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수료하며, 앞으로 자신이 섬기는 자리에서 커피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호소리오 교회 (UCCP Osorio Holy Stone Church) 사역

10월 첫 주일인 5일, 필리핀 그리스도연합 호소리오 홀리스톤교회(UCCP Osorio Holy Stone Church)에서는 성찬예배와 함께 2025-2026학년도 1학기 장학금을 학생 15명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은 단순히 학비를 지원하는 행사를 넘어, 홀리스

톤교회의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 주는 감동적인 사역이 되었습니다. 이번 장학생들은 교회 선배들이 장학금 지원을 받으며 학업을 성실히 이어가고, 이후 좋은 열매를 맺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이러한 선배들의 변화된 삶은 후배들에게 신앙의 도전이 되었고, 학생들은 "나도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을 살겠다"는 결심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홀리스톤교회의 장학생역은 작은 씨앗처럼 시작되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큰 나무로 자라가는 놀라운 은혜의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 복음의 밝은 빛이 필리핀의 땅끝까지 계속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였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 건축을 위한 부지가 마련되는 귀한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부지 위에 실제 성전이 세워져야 할 때입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의 장소이며, 지역 복음화의 중심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이 귀한 과정에 성도 여러분의 뜨거운 중보와 기도의 동참이 절실합니다. 이 모든 선교 사역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걸음걸음마다 변함없이 기도해 주신 정명철 목사님과 여리고기도팀 필리핀팀, 그리고 도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기도 제목

- ① 빅포레스트아카데미가 필리핀 기독교 명문 학교로 발돋움하도록
- ② 발루바드교회의 성전 건축을 위해
- ③ 선교사역 전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 장학금 전달식

☞ 발루바드 교회 사역



샬롬! 한신선교사입니다.

정명철 목사님과 도림교회에서 보내주시는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 덕분에 2025년 현재까지 선교 사역을 큰 어려움 없이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역 소개

2025년 전반기에는 총회 선교사 훈련과 관련 서류 보완으로 인해 현지 사역에 일정 부분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총회 파송 수습선교사로 정식 임명을 받아, 현재는 안정적으로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주요 사역지는 시불란 하우스교회, 캄부카드 하우스교회, 산 안토니오 하우스교회, 발릴리 하우스교회 등 네 곳입니다. 이 교회들은 작은 가정교회 형태로 시작하여 점차 공동체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며, 예배와 돌봄, 나눔을 중심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불란 하우스 교회

개척된 뒤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최근 성도 마리페 자매의 남편이 '웬토스피라증'(들쥐로 인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시불란 망잉카오 지역은 대나무 구조의 취약한 주택이 많아 위생 문제가 심각하고, 감염병 노출 위험도 큰 편입니다. 앞으로는 개인 위생 교육을 강화하고, 현지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예방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캄부카드 하우스 교회

울창한 숲 속에 자리한 산중 교회로, 자연의 소리가 예배를 방해할 정도로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특히 비나 태풍이 오면 거센 비바람 때문에 예배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꾸준히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초창기 멤버 중 한 분의 장례를 치르는 일이 있었지만, 성도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공동체가 다시 평안함을 회복했습니다. 비록 예배는 불규칙하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무리가 계속 모이고 있어 지역 심방과 기도로 공동체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산 안토니오 하우스 교회

이 지역은 초기부터 가톨릭 사제의 강한 반대와 박해가 심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관계가 점차 완화되어, 지금은 비교적 자유롭게 방문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예배뿐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과 삶을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온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발릴리 하우스 교회

현재 네 교회 중 가장 성장 가능성이 큰 공동체입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과 열정 덕분에 늘 활기가 넘칩니다. 그러나 최근 예배 장소가 매각되면서 임시로 한 성도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존 예배 처소가 대나무 집 구조라 위험해 보수 지원을 해왔으나, 이제는 완전한 신축이 필요합니다. 감사하게도 예배 공간이 발릴리 초등학교 소속으로 등록되어 있어, 학교 측의 협조 아래 앞으로 다시 사용할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태풍 피해로 인근 지역 일부가 무너졌다는 소식도 있으나, 언젠가 모든 지역마다 작은 예배처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자연재해 후 회복과 안전한 예배 환경을 위해
- ② 비자 절차와 선교 사역의 순적함을 위해
- ③ 선교사 가정의 강건함을 위해

개척된 하우스교회 >>





☞ ①,②,③,④,⑤ 예배당 봉헌식

☞ ⑥ 엘림기숙사
⑦,⑧,⑨ 실로암신학교

살롬!

도림교회 정명철 목사님과 성도님들께서 보내주신 변함없는 기도와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태국 치앙마이와 치앙라이, 그리고 미얀마 국경의 정글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선교 사역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카렌족 교회와 다음 세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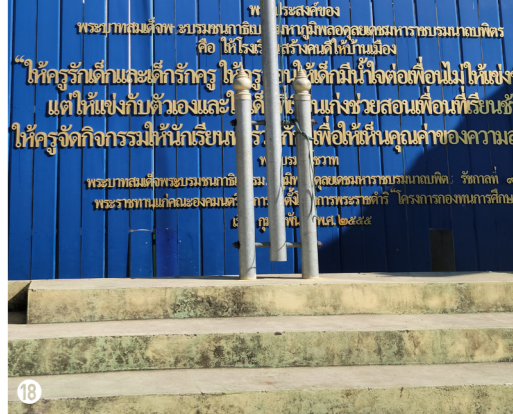
사역지와 선교적 환경

저희가 섬기는 지역은 태국 북부의 치앙마이와 치앙라이를 중심으로 미얀마 국경과 이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의 카렌족 교회들은 고산지대 곳곳에 흩어져 있으며, 최근에는 도심권으로도 확장되며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중 카렌족 19노회는 영적 활력이 돋보이며,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 복음의 불씨를 계속 이어가고 계심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태국 CCT 산하의 여러 노회 가운데 전반적으로 침체된 지역들도 있어, 교회가 다시 복음의 본질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와 교육 사역: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치앙마이에 위치한 카렌 실로암 신학교는 학생과 교수, 그리고 선교사들이 함께 기도하며 미래의 사역자를 양성해 가는 영적 중심지입니다. 특히 영어 과정은 카렌 디아스포라 공동체와 세계 선교 현장으로 나아갈 젊은 리더들을 준비시키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도림교회의 후원과 현장 참여는 이 사역을 더욱 단단하게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 사역은 신학생 훈련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 속으로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치앙마이 지역 공립학교들과의 협력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복음적 가치관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고 있으며, 이들이 장차 지역 사회와 교회의 중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치앙라이 엘림 기숙사에서는 정글 지역에서 올라온 소수민족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며, 매일의 말씀 묵상과 예배를 통해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곳의 삶은 단순한 숙식 제공을 넘어, 신앙과 교육이 조화를 이루어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배움의 터전이 되고 있습니다.



☞ 10, 11, 12, 13 정글교회와 정글사역

정글 · 난민 사역과 의료 지원: 가장 낮은 자리로 찾아가는 선교

미얀마 접경 정글 지역은 의료와 교육, 문화적 접근성이 극히 제한된 곳입니다. 이곳을 향한 사역은 사람들의 필요를 있는 그대로 보듬으며 그 속에서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돕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정글 마을은 예배 공간조차 제대로 갖추기 어려운 환경이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깊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찾아가 예배를 함께 드리고, 기도하고, 마을의 필요를 살피는 과정 속에서 관계가 깊어지고 복음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이 어려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의료 사역은 선교지의 현실을 고려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치료가 절실한 이들에게 몸의 회복뿐 아니라 마음의 위로가 함께 전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은 미얀마 난민 공동체에도 이어져, 전쟁과 혼란 속에서도 신앙과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과 예배 공동체 세우기

지역 곳곳에는 아직 예배당조차 마련되지 않아 가정집이나 작은 공간에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가 많습니다. 이러한 곳에 예배당이 세워지기 시작하면, 마을은 자연스럽게 중심을 갖추게 되고 공동체의 균형도 잡히기 시작합니다. 건물이 완성되기도 전에 새로운 이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보여주는 귀한 증거입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학생과 청년들을 위한 선교적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Ping River Church는 그중 한 예로, 학업과 일상 속에서도 예배와 나눔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치앙라이의 엘림하우스 역시 교육과 돌봄, 영적 양육이 결합된 형태의 선교적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단기선교팀 사역

현장의 필요에 따라 한국과 여러 지역에서 온 단기선교팀이 다양한 형태로 동역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의 일상을 돌보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어린이들과 교제하며 웃음을 나누고, 고된 노동이 필요한 곳에는 몸을 들여 공동체를 세우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은 단기팀과 현지 교회 모두에게 영적 자극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함께 바라보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 14, 15 학교사역
☞ 16, 17, 18 MOU체결

🎁 기도 제목

- ① 정글 · 국경 지역 사역과 나눔 프로젝트의 확장을 위해
- ② 다음세대 · 소수민족 신학생과 아동을 위한 사역을 위해
- ③ Sharing House · Elim House 등 선교 플랫폼과 사역의 지경 확장을 위해
- ④ 광범위한 사역을 선별하여 집중하고, 모든 현장에서 열매 맺도록
- ⑤ CCT와 TKBC 지도자들이 복음 중심의 선교적 교회로 변화되도록
- ⑥ 신학교와 학교 사역을 통해 세워지는 차세대 지도자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 19 졸업식





☞ 사하밋학교 졸업식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도림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선교지에서 신실한 동역자를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큰 복입니다. 사하밋학교의 교장 선생님 내외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7년 전 정명철 담임목사님께서 사하밋학교를 선교지로 지정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뜻을 깊이 분별하신 혜안이 느껴집니다. 저는 현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공동교장(Co-Principal)으로 섬기며 학교를 더욱 정성껏 돌보고 있습니다. 사하밋학교는 기독교 학교로서 세 가지 목표를 세우고 그 비전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예배와 말씀이 살아있는 '채플이 중심이 되는 학교',
 둘째, 가난한 학생들도 경제적 부담 없이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랑의 학교',
 셋째,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학교'입니다.
 이러한 목표 아래, 사하밋학교는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 양계장과 5.2 Pang 제빵소와 빵을 먹는 아이들

소낙비에도 빵을 기다리는 아이들

“빵 하나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큰 행복을 줄 수 있을까?” 매주 빵을 굽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낙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5.2 Pang 제빵실 앞에 줄을 서서 빵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그 답은 분명합니다 — 빵은 행복입니다.

매주 레시피를 바꾸어 핫도그, 머핀, 카스텔라, 피자, 고로케, 콘치즈, 애그타르 등 다양한 빵을 구워 나눕니다. 또한 Chicken Farm의 300마리 닭이 낳는 신선한 달걀은 학생들의 점심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도림교회는 매주 이 아이들에게 '행복의 맛'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쁨

사하밋의 산골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계절은 단연 크리스마스입니다. 아이들이 받고 싶어하는 15가지 과자를 모아 '종합선물세트'를 만들어 선물했습니다. 선물을 받은 학생들은 “도림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산타클로스”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ㄹ ①,②,③,④ 기숙사 학생 무료 급식 사역

기숙사 학생 무료 급식 사역

난민캠프와 밀립 지역에서 온 81명의 기숙사 학생들에게 매일 아침과 저녁을 제공합니다. 이 중 18명은 영주권만 가지고 있지만, 사하밋학교를 졸업하면 태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없는 6명의 학생이 기숙사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쌀 1톤을 구입하면 32일 만에 바닥이 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보다 더 좋은 밥상을 차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의 수고를 보람으로 바꿉니다.

사하밋학교 졸업식

3월 15일, 사하밋학교는 감사와 감격 속에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유치원생 29명, 중학생 44명, 고등학생 30명이 졸업하였고, 이 중 21명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배움의 길을 이어가는 이 아이들은 도림교회의 사랑과 기도로 자라고 있습니다.

태권도 교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태권도 교실이 잘 정착하여 현재 40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유치원생을 대상으로도 수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시내 태권도 학원 수강료는 약 5만 원이지만, 사하밋학교의 수업료, 도복, 승급심사비는 모두 선교 후원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수민족 출신이거나 난민인 학생들이 태권도를 배우며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채플 설교와 교사 영성훈련

사하밋학교는 ‘채플이 살아있는 학교’를 목표로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채플을 순회하며 말씀을 전하고, 교사 채플도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18개 지역교회를 직접 방문하며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ㄹ ⑤,⑥ 장학금 전달

ㄹ ⑦,⑧,⑨ 사하밋학교 졸업식

미션팜(Mission Farm)

현재 세 개의 미션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Mission Farm 1 : 양계장 (Chicken Farm)
- Mission Farm 2 : 채소밭
- Mission Farm 3 : 고구마밭

이곳에서 학생들은 노동과 생활훈련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고구마 수확 수익은 기숙사 학생들의 점심식사 비용으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은 수고가 아이들의 삶에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장학사역

사하밋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9명의 학생에게는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골에 남아 농사를 짓는 졸업생들에게는 ‘Cow Scholarship’(소 장학금)을 통해 생계를 돕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은 도림교회의 사랑과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하밋학교는 오늘도 “예배가 살아 있고, 가난한 학생들이 꿈을 키우며, 공동체가 함께 자라는” 학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 도 제 목

- ① 사하밋학교가 예배와 말씀으로 살아 숨 쉬는 채플 공동체가 되도록
- ② 사하밋학교가 가난한 학생들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되도록
- ③ 사하밋학교가 서로를 세워 주는 공동체 정신이 살아 있는 학교가 되도록



2025년 한 해 동안 미조람의 외진 땅에서도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사랑으로 기억해주신 정명철 목사님과 도림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 능선을 따라 흐르는 구름과 석양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미조람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길 — 철도 개통

2025년 9월, 미조람의 수도 아이졸이 28년 만에 철도로 연결되었습니다. 험준한 산악지형과 긴 우기를 극복한 대규모 공사 끝에 델리, 콜카타, 가와타와 정기 운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철도 개통은 단순한 교통 확장이 아니라 복음의 통로가 열리는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며, 이를 통해 미조람에도 새로운 선교의 기회와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넓게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엘림하우스의 변화

양어장과 운동장 완공 및 센터 건축을 위한 공간확보

15,000평 규모의 엘림하우스 농장 기도원에 지난 7월 양어장과 운동장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나무 숲의 일부 농선을 정비해 센터 건축 부지(4,200㎡)를 마련하고, 그 흙으로 계곡을 메워 3,000㎡ 규모의 양어장을 조성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생명의 회복을 드러내는 공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편 도로 확장으로 기존 4층 목조건물은 철거될 예정이며, 새로운 숙소동과 교육센터 건립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 ①, ② 양어장과 운동장 공사
- ③ 아시아포 신학교 학생들과
- ④, ⑤ 교도소와 소년원 사역
- ⑥ 노인대학 성탄 나눔
- ⑦, ⑧, ⑨ HIV 감염자 가족 돕기



2024 성탄 사랑 나눔

2024년 성탄절에는 도림교회의 사랑과 기도로 800여 명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교도소와 소년원, 노인대학 어르신, HIV 감염 가족, 중독 회복 여성, 시골 어린이, 난민 고아, 마약 재활 청소년, 암 환자, 오디사주의 가정교회 등 다양한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졌습니다. 2025년 성탄에도 도림교회의 사랑을 통해 그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HIV 감염 가족 돌봄과 나눔 사역 확장

저희 기관은 루트투브랜치(Root To Branches)로부터 HIV 감염 가족 돌봄과 나눔을 위한 사업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어, 2025년부터 3년간 재정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공예품 제작과 재봉 교육을 시작했으며, 올해는 간사 인건비와 교육 공간, 강사비, 재료비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어 더 큰 지원으로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영어회중교회 부흥회

큐티(말씀) 사역의 준비

2026년부터는 협력 중인 5개 신학교의 신학생 500명과 인도 성도들을 대상으로 큐티 교육을 시작합니다. 살롬큐티글로벌과 협력해 교재 원고를 받아 미조람에서 직접 출판·배급하며, 2개월 분량의 교재 1,000권을 연 6회 보급할 예정입니다. 말씀으로 무장된 사역자들이 세워지도록, 또한 엘림하우스에 큐티 교육센터가 세워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기도 제목

- ① 미조람 사역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도록
- ② 엘림하우스에 숙소와 교육 공간이 세워지도록
- ③ 선교사 부부가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 영어회중교회 부흥회 설교중



≡ 오디새주 가정교회



☞ 어린이사역

제자훈련 및 신학교 사역

감오 선교센터에서는 신입 신학생들이 기숙사에 거주하며 신학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기독교 신학교가 매우 부족하고 정부의 인정을 받기 어려워, 정식 신학 교육을 받은 목회자가 드문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역은 지역 교회 성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의 필요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 공사과 수리를 진행하였으며, 원주민 목회자 재훈련 세미나와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도 함께 열었습니다. 이를 통해 현지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복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전하며, 지역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사역 및 지역사회 봉사

공교육 현장에서 차별을 겪는 원주민과 난민 아동들을 위해, 저희는 아OO홈·라OO홈 등 기독교 고아원과 협력하여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아이들과 함께 첫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버스를 타고 다른 도시로 이동하며, 케이블카와 놀이기구를 처음 타 본 아이들 중에는 무서워서 울기도

했지만, 이내 웃음과 기쁨으로 가득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푸드뱅크와 장학 사역을 통해 빈민 가정의 아이들에게 생필품, 교복, 학비 등을 지원하며, 이들이 소외감이 아닌 사랑과 돌봄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교단 및 국제 교류 활동

저희는 2013년부터 SIB교단과 협력 사역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 교류와 행사를 통해 양 교단의 관계가 한층 깊어졌습니다. SIB교단 총회 임원단이 한국을 방문하여 세미나를 진행하였고, 3월에는 본교단(예정통합) 선교사회 동남아 권역장으로서 동남아 권역대회를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또한 9월에는 본교단 전국장로회 임원들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여 SIB교단 장로들과 교제를 나누며, 두 교단 간의 협력과 우정이 더욱 공고해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 기도 제 목

- ① 원주민과 난민 공동체에 복음이 확산되고 믿음이 세워지도록
- ② 신학교와 제자훈련을 통해 현지 사역자들이 성장하도록
- ③ 교회 보수공사와 목회자 파송이 잘 이루어지도록



Cambodia 캄보디아 | 송준섭·박진경 선교사

1992년 6월 처음 선교지에 발을 디딘 후, 어느덧 3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 정년 은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길은 저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여정이었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세밀한 돌보심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1999년부터는 총회 선교부 파송 선교사이자 한아봉사회 코디네이터로 재파송 받아 캄보디아에서 가장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사역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열매 뒤에는 도림교회의 변함 없는 기도와 실제적인 지원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캄보디아에서의 교육·돌봄 사역

지난해에도 캄보디아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역이 이어졌습니다. 문해 교육 사업은 총 8개의 방과 후 교실로 운영되었으며, 공부방 5곳과 영어교실 2곳, 그리고 스포츠 교실 1곳을 통해 많은 아이들이 기초 학습과 건강한 활동의 기회를 누렸습니다. 또한 룡웁과 꼬로다스 마을에서는 유치반과 탁아반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부모의 생계를 돕고 지역 아동들의 안전한 돌봄을 제공했습니다. 네 곳의 마을 센터와 교회는 예배와 교육, 지역 공동체를 돕는 복음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 캄보디아 농민의 모습





스 ① 룡웁마을선교센터 ② 조이선교센터 ③ 침례식

복지·의료·위기 지원 사역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과 재난 상황 속의 주민들을 위한 식량 지원도 꾸준히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룡웁 탁아반에서는 도림교회의 후원으로 아침 쌀죽이 제공되어 아이들이 굶지 않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전병으로 고통 받는 가정과 청소년들에게도 지속적인 지원이 이어졌습니다. 의료 사역으로는 2012년부터 운영해 온 조이(JOY) 진료센터가 매주 토요일 현지 의료팀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며 안정적인 의료 접근을 제공했습니다. 한편 1999년부터 2010년까지는 HIV·AIDS 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행하여, 12년간 총 22만 명이 넘는 이들에게 예방 계몽과 인도적 지원을 전했습니다.

청소년·장학·도서 사역

프놈펜 병레앙 청소년 센터는 오랜 기간 청소년들에게 방과후 교육, 예배, 상담, 장학 그리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공간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장학 사업을 통해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총 22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중 12명은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도서실 운영도 룡웁과 끄로다스 마을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아이들과 주민들이 책을 가까이 하는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성경 보급과 교회·기관 협력 사역

캄보디아 성서공회와의 협력은 오랜 기간 지속된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2002년부터 성서공회 이사로 참여하며 회관 건축을 돕고, 감-한 대조 성경 제작과 보급에도 기여했습니다. 2012년 10월부터 2025년 11월 말까지 누적 기증된 성경은 총 7,628권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프놈펜기독교연합봉사회를 2007년부터 운영하여 성서·기독교 서적 센터, 한아봉사회 사무실, JOY 진료센터 약품실로 활용했으며, ICF 영어예배 공동체와 캄보디아의 100여 개 교회·단체가 연중 세미나와 훈련을 진행하는 귀한 연합의 장이 되어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모든 사역과 걸음은 하나님께서 도림교회를 통해 허락하신 은혜의 흐름이었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조용히 뒤에서 기도하며, 남은 작은 힘이라도 보태어 복음의 길을 계속 걷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오랜 시간 변함없이 동역해 주신 도림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기도 제목

- ① 캄보디아의 룡웁마을 사역이 현지 교회와 사역자들을 통해 지속되도록
- ② 성경 보급과 장학·구호 사역의 열매가 계속 이어지도록
- ③ 은퇴 후에도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시도록

④ 유전병으로 고통받는 가정 돌봄
⑤ 조이 진료센터 의료봉사



BSC 이사회 >>





☞ 연합사역 길거리 전도

사역지 소개

저희의 주 사역은 현지인 교회개척 사역입니다. 전도의 통로로 시작된 무료 유치원 두 곳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 첫 교회개척자인 콤포교회로 시작으로 예배와 성경공부를 통해 영적·육적으로 성장한 제자들 가운데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신학교에 보냈습니다. 이들이 졸업 후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을 중심으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현재 사역지에는 8개의 교회가 개척되어 있으며, 대부분 4~5km 반경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주일 오후예배, 금요기도회, 길거리 전도 등 다양한 사역을 연합하여 진행하며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2025년 저희 사역지의 8개 교회는 한 해의 사역 목표를 “성숙한 신앙고백이 있는 교회”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교회가 단순히 외형적인 성장보다, 신앙의 내

실과 자립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역을 이루도록 더욱 진지하고 섬세하게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예배 사역

저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배의 회복과 집중을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삼았습니다.

현재 8개 교회 모두 주일마다 교회학교 예배와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수요일과 토요일 저녁에는 각 교회별로 성경공부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일 오후예배는 연합 찬양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금요기도회는 매주 각 교회를 순회하며 연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합예배를 통해 교회 간의 친밀함과 영적 시너지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 사경회 및 수련회

성령 사역

교회는 인간의 조직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고 움직이는 영적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체험과 믿음의 확신이 없는 신앙은 쉽게 흔들릴 수 있기에, 올해는 특별히 기도와 성령 사역에 집중하였습니다.

4월에는 8개 교회가 연합하여 2일간 '졸쳐남 사경회'를 열었으며, 7월에는 시하눅빌에서 제15회 전교인 수련회를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9월에는 다시 8개 교회가 함께하는 '뽕춤 사경회'가 2일간 열렸고, 연중에는 7일간의 여리고 기도회와 3일 특별기도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①, ② 단기선교 ③, ④ 교회연합사역 및 방문전도



선교 사역

올해는 특별히 현지 교회들이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비록 재정의 90%는 한국교회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지만, 나머지 10%는 현지 교회들이 직접 감당하여, 현지 성도들로 구성된 단기선교팀을 파송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단기선교팀은 10월 말, 말레이시아 난민학교를 중심으로 한 단기선교를 다녀왔으며, 선교를 통해 받은 은혜를 각 교회로 돌아와 나누며 지역 복음화에 대한 열정을 다시금 새롭게 하였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선교 계획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행되도록
- ② 현지 리더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 ③ 재정적 · 조직적 자립이 이루어지도록



존경하는 도림교회 담임목사님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항상 베트남 선교를 마음에 품고 변함없는 사랑과 기도로 함께해 주시는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중보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
 '지역사회 섬김을 통한 복음 전파',
 그리고 '다음 세대 리더십 강화'라는
 두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여정에
 크신 은혜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

'대변혁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베트남

현재 베트남은 국가 전반의 체계가 재편되는 대변혁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는 선교의 방향을 새롭게 세우고 더 지혜롭게 사역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정치적 변화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임 최고 지도자인 응우옌 푸 쯙 동지의 뒤를 이어 '또 람(Tô Lâm)' 국가 주석이 잔여 임기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2026년 1월 전당대회에서는 새로운 최고 지도자가 선출될 예정이며, 현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또 람 주석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행정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이 시행되어 기존 63개 성·직할시가 34개 구역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우리는 더욱 분별력 있게 주님의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저희는 올해 '지역사회 섬김을 통한 복음 전파', 그리고 '다음 세대 리더십 강화'라는 두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여정에 크신 은혜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역사회에 사랑을 전하는 섬김 사역

현지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사랑의 집 짓기', 불우 아동 장학금 지원, 장애우 돕기 등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섬김 사역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자연스럽게 효과적으로 전해지는 길이 열렸습니다. 특별히 현지 당국은 저희 단기선교팀의 방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문을 활짝 열어주었고,

기쁘게 협력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현지 주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났고, 깊은 신뢰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 개척과 성장 지원

현지 교회총회와 협력하여 교회 개척과 사역 확장을 계속 도와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새롭게 세워진 교회당 건물은 지역사회에 매우 큰 상징적 의미를 가지며 복음 전파에 놀라운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믿음의 거점은 그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학교 · 부부학교 개최

다음 세대를 이끌 젊은 목회자 부부 40여 명을 대상으로 아버지학교와 부부학교를 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참가한 부부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마음이 시원하게 풀린 것 같다"고 고백하며 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가정이 회복될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할 때 사회도 밝아진다는 믿음으로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선교사역 은퇴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 ② 아버지학교와 어머니학교가 지속적으로 부흥하도록
- ③ 베트남 빈통 지역이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도록

① ② ③ ④ 단기선교 ⑤ 사랑의 집 짓기 ⑥ 의료선교 ⑦ 불우아동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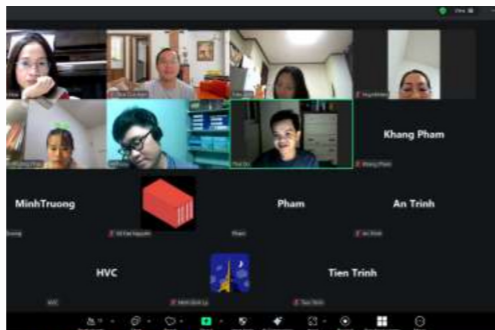
가천대 모임



경기대 모임



국민대 모임



성균관대 모임



승실대 모임



아주대 모임

살롬! 도림교회의 사랑과 기도, 그리고 지속적인 선교적 동역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역의 결실마다 도림교회 성도님들의 뜨거운 중보와 격려가 함께하고 있어 항상 감사와 감동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베트남인의 증가와 새로운 선교지형

2025년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은 약 30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유학생, 노동자, 결혼이주자 등 다양한 형태로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중 유학생은 약 10만 명에 이르며, K-한류의 영향으로 매년 많은 베트남 청년들이 한국으로 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베트남 유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은 서울이며, 그다음이 경기도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선교전략에도 큰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과거에는 선교지를 외국이라는 지리적 개념으로 이해했으나, 이제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선교대상이 있는 자리'가 곧 선교지가 되는 대상 중심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GHM 선교회의 베트남 유학생 사역

GHM 선교회의 사역은 서울의 한 중견기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업이 베트남 호치민 근교에 공장을 설립하며 직원들과 예배를 드렸으나, 현지 공간의 제지로 지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전략을 전환하여 한국 내 베트남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초점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약 7년 전부터 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대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역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재는 경기대학교, 아주대학교,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 가천대학교 등 다양한 캠퍼스에서 베트남 유학생을 대상으로 예배와 양육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유학생들의 현실적 어려움

베트남 유학생 사역은 쉽지 않은 사역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유학센터를 통해 한국행을 준비하며 거액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친인척에게 돈을 빌려 마련하기 때문에, 한국에 입국한 후에는 한국어를 배우면서도 아르바이트를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수업료와 생활비, 빌린 경비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므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국을 떠나 큰 꿈을 품고 한국에 왔지만, 현실은 생각과 달리 한국어 실력도 빠르게 향상되기 어렵고 생계를 위한 노동으로 시간 대부분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양육과 돌봄을 통한 복음의 접촉점

이러한 유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위로와 격려를 전하며 복음을 나누는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참석하는 학생은 10여 명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아주대학교와 경기대학교에는 각각 1,000명 이상의 베트남 유학생이 있으나, 실제 예배 참석자는 약 1%에 불과합니다.

한국에서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있지만, 유학생들이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로 인해 예배 참석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각 캠퍼스에는 소수의 신실한 신자들이 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 ① 한국 내 베트남 유학생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 ② GHM 선교회의 사역 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 ③ 경제적·정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유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도록



↖ 도림교회 100주년 기념으로 건축한
아시스어누그러히 교회



↖ 네팔장로회신학교

네팔 14년 사역을 인도하신 에벤에셀 하나님

지난여름, 네팔에서의 14년 사역을 마치고 대한항공 편으로 귀국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늘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돌아보면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역의 길을 변함없이 동행해 주시고 기도로 힘이 되어주신 정명철 목사님과 도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난 네팔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간략히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 현장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보호

2014년 고르카 산골학교 전도집회 중 갑작스러운 산사태로 마을 주민 3명이 생을 달리했던 비극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하셨습니다. 2015년 4월 25일, 네팔 전역을 흔들었던 강도 7.8의 대지진 속에서도 주님은 지켜주셨습니다.

네팔장로회신학교 사역 위에 임하신 은혜

2015년 10월부터는 네팔장로회신학교의 전적인 책임을 맡아 지진복구와 학교 운영을 감당했습니다. 오래된 30년 된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3층 규모의 신축 공사를 진행했으며, 신학교의 법인 등록도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5년 동안 이어진 토지 분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600평의 부지를 신학교 명의로 온전히 이전받는 결실도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 주님께서 변함없는 은혜로 함께하심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 신학교 수업



샬롬!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필환 목사와 김영숙 선교사입니다. 2025년의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선교지를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동역해 주시는 도림교회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와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는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과의 귀한 만남

올 한 해는 특별히 이필환 선교사의 신학교 제자들이 여러 차례 방문해 주었습니다. 함께 지난날을 회상하며, 선교사가 인도네시아를 얼마나 사랑했고 학생들과 얼마나 가까이 지냈는지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언어적 제약으로 인해 직접 강의하지 못하지만, 제자들은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 말이 저희 부부에게 큰 격려와 감사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현재 제자들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목회자, 찬양사역자, 작곡가, 사업가 등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 제자들과 함께



≡ 아시스어누그러히 교회 봉헌식

성전봉헌

도림교회의 후원으로, 그동안 창고로 사용하던 가건물 등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던 네팔의 시골 교회 두 곳이 새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진금호 전도사의 헌신으로 봉헌한 머한아시스교회이며, 두 번째 교회는 도림교회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채수용 목사(오경애 사모)와 백점자 권사의 헌신을 통해 봉헌한 아시스어누그러히교회입니다. 도림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흘러가 네팔 복음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도림교회 후원으로 건축한 머한아시스 교회

선교 사역의 마무리

올해 네팔장로회신학교의 마지막 학기를 진행하였고, 제37회 졸업식을 끝으로 네팔 사역을 내려놓았습니다. 14년 3개월의 시간을 돌아보며, 선교지에서만 누릴 수 있었던 특별한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억합니다. 네팔선교를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도림교회 성도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은 인생의 3막도 더욱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저여머시! (승리메시아!)

🌸 기도 제목

- ① 네팔장로회신학교와 현지 사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 ② 네팔의 복음화가 지속되도록
- ③ 선교사의 건강과 새로운 사역 여정을 위해



1

신학교와 초등학교 사역

김영숙 선교사는 이번 학기에도 압디엘 신학교 기독교교육과 학생들과 즐겁게 수업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칼리만탄, 술라웨시, 니아스, 자바 등 인도네시아 각 지역에서 모여온 이들로, 서로 다른 문화와 경험을 나누며 풍성한 배움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솔라피데 초등학교 한국어 수업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언젠가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말할 만큼 큰 열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한국의 위상이 현지 어린이들에게 얼마나 높이 인식되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수업은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마무리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자연스럽게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어 수업중인
솔라피데 초등학교 학생들 >>



2



3



4

숨바 지역 교회건축과 지역사회 사역

숨바 지역에서는 교회 건축 사역이 진행 중이지만, 인도네시아의 관료적 절차 지연과 종교적 이유로 인해 완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물파기, 빨래터, 목욕실, 화장실 건축 등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지역 교인들은 교인 가정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건축 허가서가 속히 발급되어 교회가 완공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기도 제목

- 1 솔라피데 초등학교
 - 2 초등학교 아이들과
 - 3 압디엘신학교 학생들
 - 4 Weleri 교회
- ① 인도네시아 사역과 동역자들을 위해
 - ② 숨바지역 교회 건축을 위해
 - ③ 선교사 부부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①② 메트로초등학교 증축기념식
③ 미용기술 습득
④ 미용실 오픈

⑤,⑥,⑦ 양계장 한국 연수

주요 사역현황

NGO 아가파오 사역 : ① 메트로초등학교 ② 골고다교회 예일유치원
③ 베끼아르유치원 ④ 리퀴사아가파오한국어학교
교육지원 및 후원 사역 : ① 압디엘신학교 기독교교육학과 교육지원
② 에스더비전센터 기숙사 운영 ③ 개인 장학금 지원

메트로초등학교

올해 우기가 시작되면서 학교로 올라가는 길이 심하게 파여 차량이 더 이상 진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길이 복구되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마침 8월 13일 메트로초등학교의 '소미교실'과 평화유치원 증축 기념식이 예정되자 관청에서 장비를 보내어 도로를 보수해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과 지역 관계자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무사히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산골마을 바뚜보루 와우뿌 마을에서는 두 번째로 열린 메트로초등학교 행사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에스더비전센터

자립선교를 목표로, 산골마을의 여자아이들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에스더비전센터에 기숙하며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신앙교육을 받으며 '기도하는 여성, 일하는 여성, 자립하는 여성'으로 성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초청으로 제프리와의 에스더 두 청년이 6개월간 한국에서 미용기술을 배우는 기회를 가졌고, 이후 이들을 동티모르로 다시 파송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미용실 개원 과정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실로 지난 6월 24일 'Bliss Salon'이 문을 열었습니다.

양계장 연수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합천군에 위치한 양계장에서 연수를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성도들의 많은 사랑과 격려를 받았으며, 한국교회와 협력하여 이루어진 새로운 선교협력의 좋은 모델을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일다(Ida)와 베르타(Berta) 모두 이번 방문과 양계연수가 자신들의 삶에 깊은 인상을 남긴 소중한 기회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기도제목

- ① 동티모르의 다양한 교육사역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도록
- ② 선교지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도록
- ③ 선교사 부부가 강건히 '여부'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림교회 정명철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중국인교회는 도림교회가 중국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명철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서 늘 건강하시고, 도림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폭포수처럼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올해 서울중국인교회가 감당한 주요 사역들을 간략히 보고드립니다.

신앙 양육을 위한 중국어 교재 발간

오랫동안 신앙 양육의 필요성을 느껴, 중국어로 된 양육 교재를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앞으로 중국인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이번에 준비한 양육 교재의 목록입니다.

신앙 양육 교재 목록(信仰养育教材)

- 1) 宇宙与耶和华神和我(우주와 여호와 하나님과 나: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조직신학적 접근).
- 2) 使徒信经解说(사도신경 해설).
- 3) 精选诗篇47篇(정선시편47편: 기도 훈련서).
- 4) 路(길: 한국에 사는 중국인들에게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를 소개하는 책).
- 5) 箴言(잠언: 신앙 가치관 형성과 삶의 지혜를 위한 책).

전도지 제작

현재 잘 아시다시피 중국 현지의 선교 길은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들과 한국인 선교사들 대부분이 추방되었고, 중국 정부의 '종교의 중국화' 정책으로 인해 교회에 대한 압박과 탄압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중국인교회는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10종의 전도지를 제작하였습니다. 전도 대상에 따라 내용과 접근 방식을 다르게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용 중인 전도지는 중국인 어린이용, 학부모용, 청년용,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중국인을 위한 전도지 등 총 10종이며, 서울중국인교회는 이 전도지들을 활용하여 국내 체류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전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전도 사역의 열매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
- ② 한국 체류 중국인들이 신앙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도록
- ③ 교회의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도록



连接地上和天上的路
使徒信经

使徒信经解说

1
사도신경 해설

宇宙与耶和华神和我
宇宙与生命的真相

每一个活着的生命都要幸福!
所有活着地存在都要幸福!

2
우주와 여호와하나님과 나

精选诗篇四十七篇
献给上帝的新祷与赞扬

诗篇是最好的祈祷赞扬综合课本

诗篇/תהלים/Psalms

3
정선 시편 47편

路(Way)

生命, 幸福, 祝福, 亨通, 成功之路
死亡, 不幸, 诅咒, 失败, 彷徨之路

你走哪条路?
我走哪条路?

4
길

箴言(משלי)

我的人生和灵魂的灯火 - 箴言。

最优秀的人生修养书, 人格修养书, 家庭教育书

你的话是我脚前的灯,
是我路上的光。

诗篇119:105

5
잠언

신앙 양육을 위한 중국어 교재

지역지 소개

몽골은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서방의 대러·대중 제재로 인해 정치 불안과 물가 상승, 에너지 부족 등으로 시민 생활이 어려워지고 시위가 잦습니다. 정부의 준비 부족한 교육 개혁으로 사립 대학들이 피해를 입었고, 후레대학교도 이들의 연대 소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 중인 후레대학교(Huree University)는 2002년 한국인 선교사가 세운 이공계 중심 대학으로, 지금까지 약 2,20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여러 교육 선교사들이 학문과 인성, 복음 교육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후레대학교의 사역

2022년 이후 후레대학교는 정부의 교육기관 구조조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학 승격을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학교는 교육기관 면허를 2029년까지 5년간 연장받았

며, 4개 학과의 정식 인가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체육관을 신축하고 노후 시설을 보수했으며, 교육 기자재를 확충하여 학습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교수진과 직원도 새로 충원되었고, 총장님께서도 개인 사재를 출연하여 학교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몽골 교육부의 까다로운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해 종합대학 승격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제가 학과장으로 섬기고 있는 멀티미디어학과는 2025년에 3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같은 해 3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여 후레대학교 내에서 가장 많은 입학생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이 학과는 몽골에서 가장 우수한 디자인 관련 학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이 '컬리지(College)'로 분류되면서, 내년부터는 신입생 모집과 학과 운영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학과에서는 매 학기 약 1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후레대학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실한 기독교인 교수인 어윤에르덴 교수의 박사과정 진학을 돕기 위해 특별 장학금을 후원했습니다.

또한 학교 차원에서는 몽골 초·중·고등학생들이 한국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새로운 온라인 한국어 강좌를 개발 중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동영상 강의의 기획, 촬영, 편집 전반을 지도하며, 교육 콘텐츠 제작을 총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후레대학교가 기독교 인재양성이라는 설립목적에 계속 이루어 나가도록
- ② 후레대학교가 종합대학으로 승격되도록
- ③ 선교사 가정의 강건함을 위해

≡ 어윤에르덴 교수 박사과정 장학금 전달



≡ ① 멀티미디어학과 사은회 ② 멀티미디어학과 졸업식 ③ 디자인 학술발표





① 교회입구 보도블럭 공사 ② 교회 페인트 작업 ③,④ 우물펌프 교체작업

센베차노? (안녕들 하십니까?)

한 해의 끝자락에서, 올 한 해도 변함없이 몽골 선교지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랑과 기도, 선교비로 든든히 동역해 주시는 도림교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글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몽골에서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된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

몽골 현지의 여러 교회들은 건축된 지 20년이 넘으면서 겨울이 지나면 어김없이 수리와 보수가 필요해지는 상황입니다. 올해도 교회 벽면 도색, 입구 보도블럭 설치, 고장 난 우물 수중펌프 교체, 전기 승압(220V→380V) 등 크고 작은 공사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각 공사마다 재정이 요구되었지만, 모든 과정을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도림교회의 변함없는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몽골 교역자들을 위한 영적 성장의 시간

7월에는 전 실천신학대학원장이신 박원호 총장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3박 4일 세미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많은 몽골 교역자들에게 큰 도전과 변화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의료진 30명이 직접 선교지를 방문하여 현지 주민들에게 무료 진료 사역을 펼쳐 주시는 귀한 은혜도 있었습니다.

한국-몽골 협력의 새로운 지평: 비즈니스 포럼

8월에는 주한 몽골문화원과 저희 선교부가 함께 “한·몽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몽골의 여러 사업자들이 참여하여 비즈니스를 통해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진지하게 논의하였고, 성황리에 마무리되는 값진 열매가 있었습니다.



⑤,⑥ 목회자수련회 및 교회 페인트 작업 ⑦,⑧ 의료사역



9



10

9, 10 어린이주일 초청잔치

지역사회를 향한 사랑의 사역들

교회 자체적으로도 모자주일(어린이·어머니) 주민 초청잔치, 청소년 부흥집회 등 지역사회와 다음세대 위한 여러 행사들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시 찾고, 복음의 기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기도제목

- ① 몽골 교회들의 겨울 난방 준비와 교역자 가정들을 위해
- ② 믿음의 궁전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
- ③ 몽골 평화센터에 머물게 될 탈북자들과 러시아 난민들의 보호와 돌봄을 위해

“ 모든 과정을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

도림교회 선교현황

“그 작은 자가 천 명을 이루겠고,
그 악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사 60:22)



■ 협력 및 파송선교사

가나(조영광선교사-김선희선교사) | 네팔(최희철선교사-김은영선교사) | 동티모르(이대훈선교사-김차순선교사) | 말레이시아(○○○선교사, ○○○선교사-○○○선교사) | 멕시코(아시아엘선교사, 유한나선교사-이성재선교사) | 몽골(김영주선교사-오양기선교사, 허성환선교사-박미자선교사) | 베트남(김덕규선교사-장광숙선교사, 최다니엘선교사-배에스더선교사, 김영민선교사-이은혜선교사) | 볼리비아(이생우선교사-장희영선교사) | N국(○○○선교사) | 아르헨티나(이재삼선교사-신소영선교사) | 온두라스(여인결선교사-김영리선교사) | 인도(김상수선교사-박은숙선교사) | 인도네시아(이필환선교사-김영숙선교사) | 중국(최황규선교사-김은혜선교사) | 체코(이종실선교사-김진아선교사) | 캄보디아(송준섭선교사-박진경선교사, 이용우선교사-윤은희선교사, 룡웡마을) | 케냐(김홍일선교사-이해정선교사) | 태국(최호득선교사-신미옥선교사, 김영석선교사-임미숙선교사, 김광석선교사-장정인선교사) | E국(○○○선교사-○○○선교사) | 폴란드(김상철선교사-서정희선교사) | 필리핀(최동아선교사-홍경신선교사, 김성록선교사-구선우선교사, 한신선교사-황유미선교사, 박세일선교사-이혜정선교사) | 헝가리(신성학선교사-최성옥선교사)

■ 해외선교기관

SM선교회(볼리비아) | 나누리선교병원(르완다) | 땅끝선교회(미얀마) | 방파선교회 | 범양선교회 | 북방선교회 | 새언약신학대학(네팔) | 에녹선교회 | 엘리아선교회 | 오도선교회 | 오룩선교회 | 온땅선교회 | 태국사하잇 스쿨 | 태국실로암신학교 | 파발마선교회 | 필리핀 빅포레스트 아카데미 | 필리핀아·태장신대 | 한독가교회협력위원회 | 한아봉사회 | 희망공부방(몽골)

■ 국내선교기관

C채널 | CTS기독교TV | 가스펠투데이 | 거리의천사들 | 계간농촌과목회 | 광나루선교회 | 교과서진화문제정추진위원회 | 교동문화협의회 교회언론연구소 | 기독교사회문화연구소 |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 기독교환경교육센터 | 나무를그리는공방 | 뇌졸중장애인선교회 | 다니엘선교회 대전신학대학교 | 대한성서공회 | 동행선교회 | 명지성모병원 | 브니엘의집 | 생명의길여는사람들(사) | 서울은퇴목사연합회 | 소금성경 | 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관 | 실로암안과병원 | 십자가선교회 | 안구기증운동협회 | 영등포교경협의회 | 영등포교구협의회 | 영등포산복복지회 | 영등포 산업선교회 | 예정뉴스 | 예정복지선교회 | 외국인근로자선교회 | 월간목회 | 월간현대종교 | 인간기술공생네트워크 | 장로회신학대학교 | 장로회 신학대학교동문회 | 장로회신학대학교석좌교수 | 전국여교역자연합회(안산관) | 전국은퇴목사회 | 청소년성경구락부 | 총회군선교후원회 | 총회 순교자기념선교회 | 총회한국교회연구원 | 평신도신문사 | 하늘정원수도원 | 한국교회법연구소 | 한국교회봉사단 | 한국교회역사복원연구회 한국국제기대연합회 | 한국기독교공보사 | 한국기독교목회지원네트워크 | 한국다문화학교(안산이주민센터) | 한국장로교복지재단 | 함께사는세상

■ 사회기관

관악고등학교 | 대영고등학교 | 도림동주민센터 | 도림동청소년지도협의회화장학금 | 영등포여자고등학교 | 영등포초등학교 | 영등포푸드뱅크 | 영신고등학교 | 햇살보금자리(노숙자선교지원)

■ 국내교회

가천교회 | 각산사랑교회 | 강남동광교회 | 경안소망교회 | 김포샘터교회 | 농기교회 | 대림교회 | 대림동교회 | 덕신교회 | 동문교회 | 동지교회 (지체장애인) | 말씀듣는교회 | 목천교회 | 뽕밭교회 | 병곡교회 | 삶의비전교회 | 새노래교회 | 새화순교회 | 서울중국인교회 | 성문교회 | 송내교회 | 안산은혜교회 | 여수도림교회 | 예주교회 | 옥성교회 | 온세상교회 | 용동교회 | 작은이의벗친구교회 | 주은혜교회 | 청원중앙교회 | 평화마을교회 | 하나교회 | 하나로도림교회 | 하나힘교회 | 하늘기쁨교회 | 하늘정원교회 | 한벗교회(예사랑공동체) | 한울교회 | 행복교회 | 호산나교회 | 햇빛교회

■ 군선교 2기갑여단 | 반석군인교회 | 엘리아교회

■ 카우뱅크 베트남

■ 사랑의 우물

가나(아눔직업학교, 안치아시교회 수도시설, 아히메수 마을 우물관정) | 동막교회(상수도관) | 라오스선교센터 | 말레이시아 | 몽골(삼우회랑공부방) | 미얀마(보부교회, 이웅산 문화센터, 여성의료선교센터) | 신암교회(모터 펌프) | 인도(가브리엘 초등학교 물저장 탱크, 세승마을 취수장, 엘림하우스 취수장) | 캄보디아(롱웡마을, 썬다익중고등학교 우물, 또압스다익 마을 우물 개발 및 펌프 물탱크 설치) | 필리핀 아·태장신대(물저장탱크) | 케냐(카보모 기도의집 취수장)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14)

And this gospel of the kingdom will be preached in the whole world
as a testimony to all nations, and then the end will come. (Matthew 24:14)

